



해외 도심 재생 현장 탐방 시리즈

# 역사·문화가 살아나면 도시는 화려하게 부활한다

도심 재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보다 과거에 비해 쇠퇴한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과거 산업 혁명 이래 각종 제조업을 선도하며 영화를 누렸던 영국의 많은 도시들이 탈 산업화로 인해 쇠퇴를 거듭하면서 폐기됐던 공장 지대 등을 재활용하는 등 도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 사진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경제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구도심만의 장점이다. 영국에는 선사 시대 유적인 스톤헨지(Stonehenge)로 대표되듯 오래된 역사·문화유산을 비롯해 근대 산업 혁명의 유산 역시 시골 구석구석마다 분포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를 활용해 각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현대적으로 재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 수변 공간의 재해석, 영국의 도심 재생

맨체스터(Manchester), 리버풀(Liverpool), 버밍햄(Birmingham), 게이트헤드(Gateshead), 글래스고우(Glasgow) 등 도심 재생 사업이 주로 항구와 강, 운하를 따라 수변 공간(Water Front)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탈 산업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도시 흉물로 남았던 공장과 창고 등을 변화시켜 과거의 영화를 부활시키자는 '르네상스(Renaissance)' 가 도심 재생의 공통적인 과제다.

이러한 수변 공간의 재생 사업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과거 공장과 창고 등 독점적으로 점유되어 있던 수변 공간을 이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공간으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원칙이다. 둘째, 수변을 따라 다양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1 영국항공이 새 천년을 기념해 만든 런던아이는 도시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 리버풀의 킹스 도크.

이 친숙하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 셋째, 이러한 문화 공간은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역사 자원을 재활용해 수변 공간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킨다. 과거 공장과 창고 등을 무조건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해 문화를 담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미다스손'의 역할을 하는 디자인 손질을 거쳐 마무리된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그 장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맛을 더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 산업 시대 등의 역사 자원을 재활용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이 도시 재생 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 역세권 개발의 모범 답안, 리버풀

리버풀(Liverpool)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인 알버트 도크(Albert Dock)는 예전의 항만 시설과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의 문화·여가의 쉼터로 거듭나게 한 경우이다. 이곳에는 테이트(Tate) 뮤지엄과 비틀즈 스토리(Beatles Story) 등의 문화 시설이 입지해 있는데, 리버풀 출신의 비틀즈와 같은 무형의 문화 자원을 이용해 비틀즈 투어(Beatles Tour)를 개발하는 등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해상 운송의 거점이었던 수변 공간뿐 아니라, 산업 혁명 후 주요 교통 수단으로 부상했던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지역도 오늘날 도심 재생의 주요 대상지다. 이에 따라 리버풀은 관문 철도 역인 라임 스트리트(Lime Street Station)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 지역과 알버트 도크의 수변 지역을 잇는 도심부 전체를 재개발하는 리버풀 원(Liverpool One) 프로젝트는 가히 그 규모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리버풀은 과거 무역·공업 도시로서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해 2008년 유럽 문화수도 지정을 자축하고 있다.

#### 버밍햄, 수변 공간 활용으로 다시 태어나

글래스고우 역시 클라이드(Clyde) 강변의 옛 조선소 도크 자리를 재활용해 과학 센터(Science Center)를 짓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여가·상업 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수변 공간을 도시민에게 되돌려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는 또한 전시·컨벤션 센터(SECC; Scottish Exhibition & Conference Center) 등이 위치하면서 새로운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해 강변을 따라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기능해왔던 도심 지역의 켈빙그로브(Kelvingrove) 미술관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글래스고우는 과거 음울한 공업 도시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해 1990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버밍햄은 한동안 영국에서 가장 영국답지 않은 도시, 즉 영국다운 도시 역사나 특성을 찾아보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버밍햄은 다시 과거의 역사 자원으로서 그물망처럼 엮여 있던 운하에 주목해 수변 공간을 재활용한 도심 재생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도심을 통과하던 과거의 운하 주변에 컨벤션 센터(ICC: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와 심포니 홀, 실내 경기장(NIA: National Indoor Arena), 수족관 등의 선도 시설을 입지시켜 수변 공간을 브린들리 플레이스(Brindley Place), 메일박스(The Mailbox) 등의 다양한 업무·상업·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유도해 탈바꿈시켰고, 이에 따라 공장과 창고를 대신해 운하와 어우러진 고급 주거 시설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운하 주변에 창출되는 새로운 공간은 도심 내 재래시장 지역을 재활용한 불링(Bullring) 쇼핑 센터와 더불어 버밍햄 도심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 밀가루 공장이 예술 작품의 산실, 발틱 미술관으로 탈바꿈

맨체스터도 주변 샬퍼드(Salford) 부두 지역의 공장·창고 지대를 재개발



3



4



5

3 문화 공간의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한 게이츠헤드. 4 옛 조선소 도크 자리를 재활용해 수변 공간 활용으로 재탄생한 글래스고우. 5 다양한 업무와 상업, 문화 시설까지 복합 공간으로 변모한 버밍햄의 브리들리 플레이스.

해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올드트라프트 스타디움을 새롭게 건설하고, 로우리(Lowry) 예술 센터, 전쟁 박물관 등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집적시켜 과거 공업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도시 이미지 변신의 성공 사례로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자주 소개된 게이트헤드를 들 수 있다. 산업 혁명 시절 석탄산지로 철강 산업 등이 발달한 게이트 헤드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뉴캐슬과 마주한 타인(Tyne)강 주변에 세이지(Sage) 음악 센터와 발틱(Baltic) 미술관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서부터다.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세이지 음악 센터를 비롯해 발틱 현대 미술관과 밀레니엄 브리지는 그 건축·조형적 디자인에 있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탈 만큼 빼어나다.

그렇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설들이 단순한 문화 공간이 아닌, 문화를 매개로 한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주민의 자긍심을 키워주었다는 데 있다. 특히 발틱 미술관은 과거의 밀가루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재활용한 것으로, 단순히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예술 작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 공업 도시였던 셰필드, 문화 산업 도시로 '불입'

문화를 매개로 특정 도심 지역이 아닌, 도시 전체를 되살린 경우로는 셰필드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셰필드는 한때 세계 최초로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을 만든 공업 도시로 그 이름을 날렸지만, 이후 탈 산업화가 진행되어 철강 산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 경제는 급속한 침체를 면치 못했다.

황폐화된 도심에 다시 시민들을 끌어드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문화 공간으로, 시청과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 밀레니엄 갤러리(Millennium Gallery)는 작은 식물원인 윈터 가든(Winter Garden)과 민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호텔과 연계해 복합 개발돼 문화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센터이자 도시민의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밀레니엄 갤러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고, 갤러리 내에 있는 상징 조형물은 스테인리스 스틸 포크와 나이프 등으로 만들어져 과거 산업 혁명의 역사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재활용해 교육 현장으로, 또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셰필드에 있어 문화는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넘어 도시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의 셰필드 할람(Sheffield Hallam) 대학 등과 연계해 조성된 문화산업지구(CIQ : Cultural Industrial Quarter)에는 각종 문화·예술 산업과 R&D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조형미가 넘치는 가로 공간의 정비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 서, 이제 셰필드 도시는 젊은 고급 인력들이 즐겨 찾아오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프로슈머(Prosumer)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한때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공업 도시가 도시 재생을 통해 문화 산업 도시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성공 비결

현재 리버풀, 글래스고우, 셰필드 등 영국의 많은 도시들은 거대한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도심 개조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영국의 도시들은 '공사중(Under Construction)'이다.

최근의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변하고 있다. 결국, 도심 재생의 기본 주체는 지방 정부가 되고, 중앙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종합적인 도심 재생 계획에 기초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화의 지역 귀속적(Area-Specific)이라는 특성에 의해 각 도시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6



6 항만 시설과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의 문화와 여가의 쉼터로 거듭난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7 셰필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밀레니엄 갤러리는 복합개발을 통해 휴식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